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제16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 115:11-18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새찬송 38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새 38번 (스크린 참조)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을 잊지 않기에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오니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성령으로 일깨워 주셔서 모든 일을 주를 경외함으로 내 맘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만남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사랑뿐임을 잊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시는 것만이 영생을 향한 구원의 길임을 날마다 때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마태복음 18:21-35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용서받은 자의 삶

- 봉 헌(offering) 376장(새 450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493장(새 436장)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오늘 친교 후 12:30분에 믿음속 모임이 있습니다.
(속장 : 송현진, 속원 : 김연진, 김영희, 김희상, 석명선, 신성화/박인숙, 송금자, 유동진/이진옥, 이경자, 이진국/김성애, 정태욱, 허춘희)
3. 지난 주일에 새로 오신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장석순님 - 임숙재 권사님 인도

<기도제목>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영어권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캄보디아 조동천선교사님)

<이 달의 속회 적용점> 고린도전서 9:19-23

나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고 왜 그런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나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려면 철저히 그 사람의 자리에게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과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기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며 비로소 막혔던 관계가 풀어집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봅시다.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말씀묵상〉 마태복음 18:21-35

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23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 그 종이 없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 그 동료가 없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1. 임금이 만 달란트 빚진 종이 간청할 때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21-27절) 나에게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용서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2.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만나 한 일은 무엇이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9-35절) 나에게도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할 만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용서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능력의 차원으로 볼 때도 스스로서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한계와 주님의 말씀 사이에 도저히 메꿀 수 없는 간격이 생길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존재합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을 때 용서받았는지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지극히 당연함을 쉽게 수긍할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힘씁니다. 비록 잘 안될 때도 많이 있지만 나를 위해 주님이 치르신 그 희생의 대가를 생각하면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용서의 은혜는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감옥이 되고, 지옥이 되는 것은 용서받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할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옥과 같은 이 땅에서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야말로 그 인생 감옥을 여는 열쇠요, 지옥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열쇠입니다. 나는 지금 이 은혜와 사랑을 복으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